국제선명상축제, 대국민 축제로 발돋음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3월 17일 제3차 회의서
4월 1~6일 '2026 국제선명상축제' 진행 공유
진우 스님 "국민들 불교 쉽게 접하도록" 당부

조계종이 국제선명상대회를 대국민 명상 축제로 발돋음 시킨다. 일상 속 수행의 연결로 '하루 5분 선명상'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선명상 브랜딩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위원장 금강 스님)는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제선명상대회'와 '선명상 템플스테이' '선명상 개론'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선명상위원이 참석한 가운 이날 회의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국제선명상축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국제선명상축제는 깨달음, 몸, 삶, 치유, 집중, 소통, 휴식 등 총 7개 분야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명상과 요가 등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찾고 감정 조절, 상처치유, 수면 개선, 긴장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계종은 대회를 계기로 '하루 5분 선명상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선명상 캠페인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간화선 특별초청법문과 함께 젊은 층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준한 스님과 가수 하림이 함께하는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위로 콘서트가 열린다. 뉴진스님의 디제잉 무대는 덤이다. 또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과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예능인 홍석천 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모한 도전에 대한 토크쇼도 준비됐다.

이와함께 깡세르 린포체의 대중 특강이 이어진다.

조계종 측은 이번 2025 국제선명상대회 참여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은 친환경 바른 행사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5~9월에는 전국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0월 국제 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2025 국제선명상축제'는 마무리된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우리 불교 고유의 선 수행과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 등이 융합된 것"이라며 "국민과 젊은이들이 불교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전법이 돼 우리 국민들에게 불교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밀했다.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지난 2월 28일, 세계 인구가 82억명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세상의 행복을 위해 선명상이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회에 잘 알려져 선명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진우 스님, 정치인들에 "국민에게 진심 참회하라"

한동훈 전 대표에 "정의로운 정치"
안철수 의원에겐 화쟁 사상 강조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예방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에게 참회하라"고 쓴소리했다.〈사진 왼쪽〉 3월 19일 예방한 안철수 의원에게는 화쟁 사상을 품고 정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인들의 연이은 예방에 "오직 국민 행복만을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예방을 받고 "난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진심으로 참회하길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책임이 크다면서 "종교계 어른의 가르침을 배워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 전 대표에게 모든 사물은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물급필반(物極必反)'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깥 환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인연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스스로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세상이 평안해도 내가 흔들리면 불편하고 세상이 복잡해도 내가 중심을 잡으면 스스로 평안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민감한 시기, 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만큼 현 국가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분명히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진심으로 참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또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내가 중심을 갖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길 바란다"면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바라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결과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책임이 크다"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해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지혜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 참회해야한다"면서 화쟁 사상을 품고 정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현재 난국의 상황에 대한 대화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진우 스님은 의사이자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에게 불교와 양자역학의 접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첨단 과학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최근 젊은 층들이 삶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에는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다"면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선명상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마음을 잘 다스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합의 의미가 담긴 화쟁사상으로 불교는 역사적으로 자비와 호국, 평안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삼원 통합으로 전법포교"

3월 18일, 봉선사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

멸빈자 사면 특별법 제정안 보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유



조계종이 4월 1일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에게 202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 종책사업을 보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8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불기2569(2025)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 일부 개정안 보고의 건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보고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종법 제개정의 건이 보고됐다.

진우 스님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혼란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종단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할 때"라며 "집행부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 평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신행생활 중심에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실시될 삼원통합에 대해서도 "의미를 적극 살펴 전법 포교와 승가교육 체계화를 적극 살필 것"이라면서 "치유, 평안, 화합을 기치로 삼아 사부대중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진심 어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 미래를 열어가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날 회의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조직개편에 따른 종법 제개정의 건 등이 보고됐다. 3월 26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사면복권특별법을 상정하고 원로회의 종헌 개정안 인준을 거쳐 종헌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면대상자 확정과 임시 중앙종회 안건 상정, 종정 사면대상자 품신 후 사면 복권이 시행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382억 5410만원이다.

한편 이날 진우 스님은 호국대전당 건립불사를 원만회향한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남양주=임은호 기자

동국대 이사에 성화·덕운 스님 추천

종관위, 3월 18일 회의서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동국대 이사 후보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 덕운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심 스님, 종관위)는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이사) 후보 복수 추천의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화 스님은 정우 스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구장애인복지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장안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맡고 있다.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5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과 충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종관위가 복수 추천한 동국대 이사 후보는 3월 26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인 절차를 걸쳐, 동국대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이날 위원장 오심 스님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종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총무원장 선거제도 「직선제」로 한국불교 혁신하자!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기구의 대덕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승가는 대중공사라는 수승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중공사는 공의와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불가의 전통적 논의 제도입니다. 승가는 중요한 일을 이러한 대중공사를 통해 토의하고 결정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갈마제도(羯磨制度)와 산중공의(山中公議) 제도는 의사결정과 화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현대의 직접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모범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정작 대중이 소외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제 35대 선거에서는 한 스님에게 금권선거로 징계처분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불사를 통해 안착된 것입니다. 이후 열한 분의 총무원장과 다섯 분의 권한대행이 종단을 이끌었습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는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대 종단의 수장을 뽑는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런저런 잡음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가 확대된 방식의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단이 사회 변화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능력 있는 스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면 불교는 발전 동력을 잃고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기대할 것이 없어진 대중은 실망하여 무기력에 빠지거나 떠나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종도 대중의 제안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토론도 제법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많은 논의는 무위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공의를 왜곡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직선제입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직선제 논의가 다시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직선제를 재론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종단이 혁신을 외면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다면 우리 불교와 승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출가자와 불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고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회의 물음에도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이제라도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원로회의,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 종헌기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십여 년 종도 대중의 염원이 관철되도록, 일체의 잡음이 없는 투명하고 청정한 직접선거로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혁신해 나갑시다. 총무원장 직선제로 새로운 불교사를 장엄하고 불교 중흥의 당간지주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불기2569(2025)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法 應